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76호 현대불교  
2010년 3월 24일(음 2월 9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 나 주인공 하나를 세워놓고 모든 걸 놔버리세요

### 진정으로 화목하게 지내려면...

**문** 저는 남편이랑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 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가게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모든 게 내 탓인 양 내게 욕설을 퍼부어 대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만 화병으로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 마음공부를 만났고 지금은 차츰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진정으로 화목하게 지내려면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답**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주인공을 진실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 따귀를 맞는다 해도 그것도 주인공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니까 맞은 거지, 눈에 안 보이면 맞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느냐고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맞은 것도 자기 탓이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맞은 거니까요. 지난 날 어떠한 문제가 생겼었나? 맞는 겁니다. 꼭 때려야만 맞는 게 아니라 불손한 일을 했으면 불손하게 들어올 거고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발견을 해야 그때서부터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깨닫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고 나의 병도, 나를 건강하게 끌고 가는 것도, 가난하게 끌고 가는 것도,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체험하고 연구하고 또한 지혜를 기르면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깨치지 못했다고 해서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 나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남의 마음이 편안하고 한 가정이 화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밥을 굶어도 허허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구요. 나로 인해서 옆에서 운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공에 다 놓고 가면 거기까지 밝게 불이 들어와서 우는 것을 딱 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변연히 알아서 못 믿는 사람, 그건 배넷 병신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 보시고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져 보세요. 가계를 하는데 영 되는 노릇도 없고 또 가난하고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 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언제나 그렇게 생활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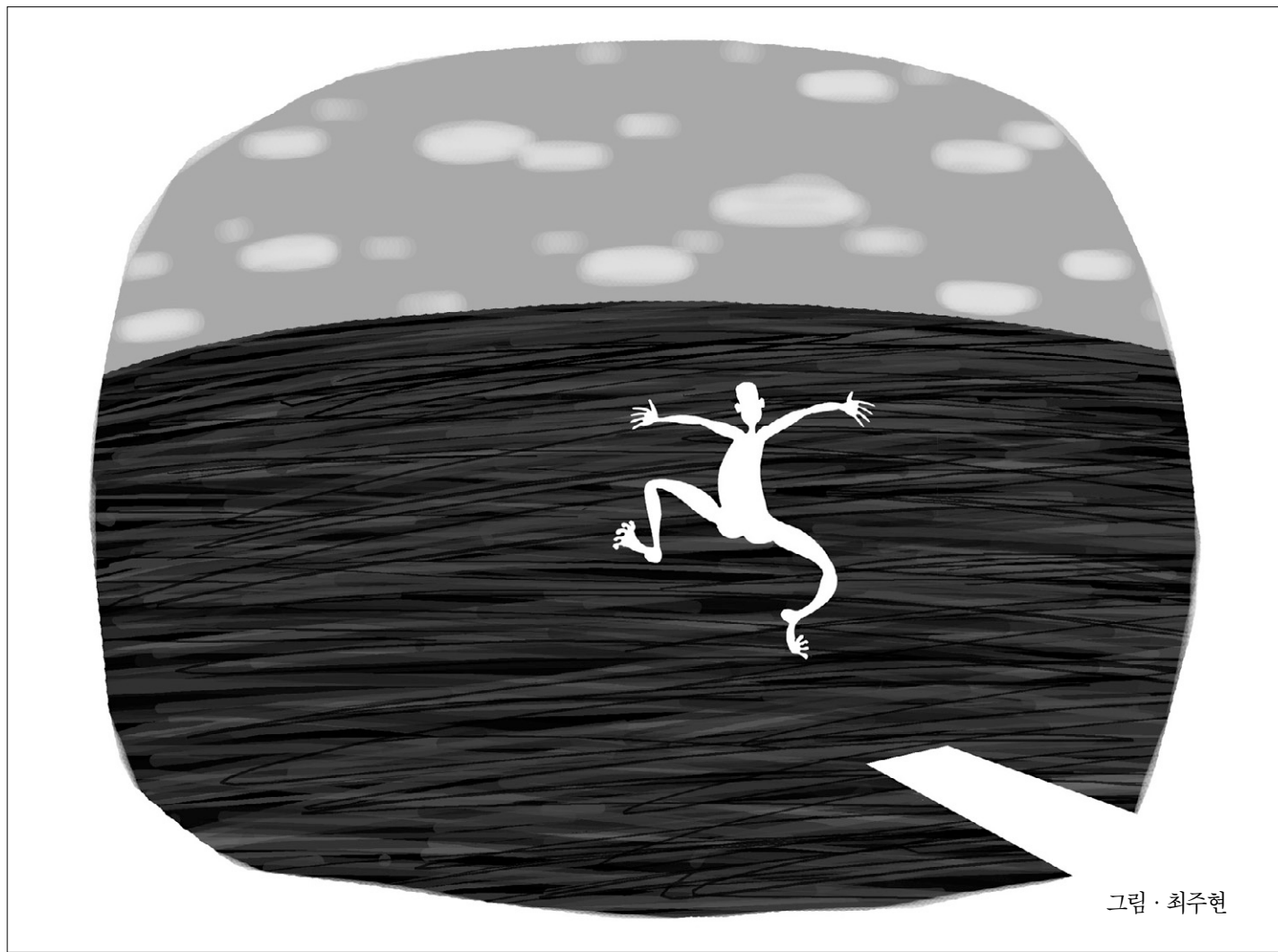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보세요.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안되는 것도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금방 돌아갑니다. 수레바퀴 돌아갑니다. 찻바퀴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는데 '고정됨이 없다' '공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잡숫는 것도 고정됨이 없다면 잡숫는 분도 없고 빵만 잡숫는 분도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것 먹다가 어떤 땀저것 먹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고정됨이 한 가지만 잡수십니까? 만남도 그렇고 가고 오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 사는 게 다 고정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잘나 생활하며 고정된 게 없으니까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병이 생겨도 내가 먹는 음식이나 그런 게 모두가 약입니다. 밥도 약인 걸요. 빵도 약이고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

는 거죠. 그거 전부 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조절하면서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너밖에'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믿어 준다면, 아마 사람한테 그렇게 믿어 준다 해도 생명을 걸고 바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그렇게 진실하게 믿어준다면 모든 일체 생명이 다 같이 호흡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몸을 이끌어 가는 내 속의 오장 육부의 모든 세포에 들어 있는, 전자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과로 인해서 업식이 뭉쳐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하게 하든 선하게 하든 바로 내 몸을 이끌어 가는 친구입니다. 한마음의 친구요. 나하고 둘이 아니에요. 그게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내 몸이 지금 다닐 수

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다, 누구다, 내 거다 이런 생각도 마세요. 내 몸도 내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나 내 몸속에 있는 그 생명들도 주인공에 다 모든 것을 일체 놓는다면 악업이나 선업이 다 자동적으로 녹아버리고 바로 그 생명들이 바로 보살로 화해서 여러분의 털구멍으로 들고 나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간다 이겁니다. 오히려 나쁘게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체험해 보세요.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아! 이렇게 신성하고 맛있는 것은 난 처음 봤어. 처음 먹어 봤어. 처음 느껴 봤어.' 이라고 알게 되는 거지 남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스스로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정말 이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주를 다 집어삼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신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렇게 끄달리지 마시고 열심히 안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같이 살면 죽은 뒤 어떻게 될지요

**문**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데 저를 돌아보니 바로 지옥행이 싫습니다. 제가 좀 망나니처럼 살았거든요. 부인이 절에 가 보자 그래도 다음에 간다고 그러면서 늘 미웠었는데 이런 저의 의지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저같이 살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알려 주시어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답**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 봐야 할 거는 이 인연에 따라서 문진 것이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그거 분산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대가 흩어져서 없어지면 그 의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차원대로 그 의식들이 모였다가 흩어질 때는 수많은, 즉 말하자면 질척질척한 데서 낳는 거, 화해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알로 낳는 거 이 사생의 어떤 것이 될지 그거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고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산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 원자에서 입자가 되고 입자에서 분자가 되고 분자에서 화해 가지고 그날 수많은 것이 나가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그냥 수만 개의 생명이 우르르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즉 말하자면 어떤 것은 지네가 되고 어떤 것은 지렁이가 되고 어떤 것은 독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 나갑니다.

사생이 사는 게 다 우리 인간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것은 아프지 않습니까? 별래라고 밟으면 안 아픈니까? 또 우리 인간은 밝히면 안 아픈니까? 모두가 아프고 고통이고 고입니다. 내가 언젠가 어느 지원에 갔다가 허리를 조금 아파 봤는데 내 그렇게 허리 아픈 거 처음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아! 참 이렇게 앓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아! 내가 여기 조금 더 있으라고 하는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그러고서는 껌 껌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냥 난 더 있다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내가 갔더라면 큰일 날 뻔

26면으로 계속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 제 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 과 목	교육 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교육기간 : 2010년 2월 20일 - 2010년 5월 22일 / 모집기간 : 매월 상시모집 중

중앙 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 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 교육원 053-566-1116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 교육원 051-636-2972 광주 교육원 062-672-5432 울산 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 경기북부 / 충청남부 / 충청북부 /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르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